



제 6 편 종교 宗教

제1장 총론 總論

우리나라 전통적 고유신앙은 고대부족국가에서 자연적으로 행해오던 집단적 신앙행위인 무천(舞天; 예맥(濊貊)족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식), 영고(迎鼓; 부여족의 제천 의식), 동맹(東盟; 고구려족의 제천 의식), 소도(蘇塗; 마한 사람들의 하늘과 해를 숭배하는 제사의식), 솟대 등에서 산신제, 연등제, 당산제, 기우제, 팔관제, 유두제, 단오제, 용왕제 등으로 전승되어 자리 잡은 토속신앙이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유입된 유교, 도교, 불교가 우리민족의 토속신앙을 흡수, 재해석하여 민족종교로 또는 국교로 발전되었으며, 조선중기에는 서양으로부터 서학 즉 기독교가 학문으로 들어와 점차 신앙으로 발전되었다. 조선후기에는 혼란하고 불안한 국내의 상황을 반영하듯 동학, 단군교, 증산교, 원불교, 시천교 등의 신흥종교단체가 창설되어 민족자생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외래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 등이 모두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민족의 정치, 사회, 교육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민족의 정신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며 유·불·도 3교는 한민족의 토속신앙과 융합되면서 완전히 귀화하여 한민족의 특색을 간직한 토착종교로서 변모하여 더욱 발전하고 정립되어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지주가 되었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으나 여건상으로 살펴볼 때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3) 때 오경박사(五經博

士) 왕인(王仁)이 유교의 경전(經典)인 「논어」(論語) 「효경」(孝經) 「천자문」(千字文)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사람들의 학문의 시조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가장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학을 받아들인 것이라 추측되며, 고구려는 서기 372년(小獸林王 2年)에 유교식 학당인 태학을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는 양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682년(神文王 2年 壬子) 6월에 유교식 학당인 국학을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기록으로는 없으나 유교의 전래는 한자가 유입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기자조선(箕子朝鮮), 위만조선(衛滿朝鮮)까지 소급하여 생각할 수 있고 중국의 한나라 무황제(武皇帝)에 의하여 고대 우리나라 강역에 있던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낙랑(樂浪), 진번(真番), 임둔(臨屯), 현토의 4군이며 이 때에 이미 한자문화가 유입되었는데 이 때가 기원전 108년이니 기록에는 없으나 유교 문화의 기록을 따지자면 3천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유교란 중국고대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산둥반도(山東半島)에 위치한 노(魯)나라에서 태어난 대성, 공자의 교훈을 신봉하고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로서 학문하는 선비들에 의해서는 유학이라 불리워져 종교임을 거부하고 공자의 가르침과 같이 인간의 인격의 완성과 생활에 필요한 도의(道義)를 중심으로 하는 인생철학의 개발이다.

인생윤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임으로 치국(治國), 치세(治世), 수기(修己), 치인(治人)의 도덕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문으로 그 핵심은 인(仁), 의(義), 선(善)을 중심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문이라는 주장이다.

공자께서는 유교의 연원을 중국고대의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무(文武), 주공(周公) 등에 두고 있으며 고대의 도의정치(道義政治)를 계승하는 것으로 인의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생활을 철칙으로 하는 완전한 지침과 체계를 세움으로서 유교로서, 유학으로서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세계종교를 이룩한 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 등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으며, 4대 성인의 가르침은 지구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이 전수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 제17대 소수림왕 2년(372년)이니 전진(前秦)의 왕이 승려순도를 고구려에 보내면서 불상과 경전(經典) 등을 전하여 주어 불교문화가 전수되면서부터 맹렬하게 전파되기 시작

한 불교는 동방불교로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다.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384 년(百濟 枕流王 1년 甲申) 동진(東晉)으로부터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배를 타고 건너와 처음으로 불교경전을 설법하며 백제에서 많은 승려를 양성하여 각처에 사원(寺院)을 세우게 하며 불교문화와 불교예술의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에는 고구려의 고승 묵호자(墨胡子)가 국경을 넘어 신라의 일선군(一善郡, 現 善山郡) 모례(毛禮)라는 사람의 집에 와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시기에는 지하에서 포교하는 정도였으니 417년에서 457년의 사이라 하겠다. 국가의 공인을 받아 포교하게 되기에는 시간이 걸려 527년(法興王 14년 丁未)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비로소 호국불교로서 인정되고 국교에 다름없는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상한 종교로서 기원전 500년 인도의 가비라위성(迦毘羅衛城)을 지배하는 석가(Sakya 釋迦)족의 왕자 싯다르타(悉達多)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번뇌에서 해탈(解脫)하고자 명상심사(冥想深思)하였으나 인간의 현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종교계 철학계의 명망 있는 선생을 찾아서 자신의 회의를 풀려고 하였으나 무위에 끝나고 독자적인 사색과 수련으로 해결할 것을 결심하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6년간의 고행를 계속하여 마침내 견성오도(見性悟道)하여 심안(心眼)이 열리게 되어 불타(佛陀 Buddha)가 되시니 여래(如來), 세존(世尊), 석존(釋尊)이라 하는데 이분의 가르침을 불법, 불도라 하여 동양은 물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였다.

불교의 교리는 삼법인(三法印), 사체(四諦), 십이인연(十二因緣), 팔정도(八正道) 등으로 요약되는데 삼법인은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말하는 것이며, 사체는 고(苦), 집(集), 멸(滅), 도체(道諦)를 일컫는다.

십이인연이란 인연의 도리를 구체적으로 해설한 것으로 우주만물의 생성 발전과정이 모두다 인연으로 이뤄진다는 연기설 이라하며 팔정도는 사체 중 도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덟까지의 정도를 논하는 것으로 후세에 불교의 각종파가 종교적 철학적인 교리문제로서 분파되나 사실은 모두가 이 삼법인, 사체, 십이인연, 팔정도의 해설을 달리하고 확대 해석하는데서 오는 교파간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기원전 67년경 남방의 소승불교와 북방의 대승불교가 같이 중국으로 유입하여 불교경전의 한문번역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전연구가 활발하여지면

서 중국불교의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불교학설 불교사상을 체계화 하면서 불교의 전성기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13개종파로 갈라져 종파를 형성하였으니 비운, 성실, 율, 삼론, 열반, 지론, 정토, 선, 섭론, 천태, 화엄, 법상, 진언 등의 종파가 생겨났다.

다시 상기 각 종파에서 율종(律宗)은 범강율(梵綱律)과 소승율(小乘律) 남산율(南山律)로 삼론종(三論宗)은 신삼론(新三論), 구삼론(舊三論), 사론(四論)으로 분열 되었고 선종(禪宗)은, 남돈(南頓) 북점(北漸)으로 북점은 다시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분파됨으로서 사상적 철학적 발전을 거듭하여 불교학문의 전성기를 꽃 피웠다.

이렇게 하여 학문적 사상적으로 체계가 확립된 불교사 삼국으로 유입하여 중국불교의 13종파가 거의 전파되었으나 동방민족의 지혜로움은 이것을 여과하여 순수한 불교경전의 연구 발전하여 정신적지주로서 호국불교로서 성장시키는 한민족 불교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고구려의 승랑(僧朗), 백제의 겸익(謙益), 신라의 원측(圓測) 등을 위시로 원효(元曉), 도증(道證), 태현(太賢) 등은 불교사상의 형성과 현법열반(現法涅槃)과 호국불교라는 명제아래 체계화하고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국으로 계승되면서 더욱 강하게 호국불교의 성격을 강화하여 국민정신을 불교에 결합귀일 시키는 결과로 발전시켜 불교를 국교로 하고 국가의 수호를 불법에 의지하는 호국불교의 정신적 지주는 빈번하였던 외침을 물리치고 국난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각판은 고려국민정신을 통일시켜 몽고군의 침략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되었다.

민족문화와 불교문화가 번창하던 시기가 지나면서 지도층의 타락과 함께 쇠퇴하면서 고려국의 멸망이오면서 민족의 정신적지주로 발전하던 불교가 쇠퇴, 유교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오고야 말았다.

그러나 원효의 화통적 총회불교의 정신은 고려에 계승되어 한민족의 슬기로움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구산선문(九山禪門)을 확립하고 선불교(禪佛敎)의 교종으로 창종(創宗)하였으며 재래불교인 경전중심으로 교학을 주장하는 교학승이 중심이 된 교종으로 양분되어 2대산맥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불교로서 정착시키는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

선종과 교종의 대립관계는 고려불교의 지대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나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융화시켜 한국불교로서 정립하는 과정에서 대각국사

(大覺國師) 의천(義天),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과 같은 도승의 출현으로서 수다한 종파가 통일 융합되어 선교종의 양대 종파로서 정립하여 한국적 불교로서 발전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사상적 교리적 불교로서 정착하여 찬란한 불교문화가 꽃피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가 되어 정신적 지주인 국교가 유교로 바뀌고 숭유배불(崇儒排佛)의 정책으로 바뀌면서 도첩제(度牒制)를 실시, 승려의 출가를 억제하며 심지어는 사원을 폐지하고 승려를 환속시키는 강제정책을 시행하고 승려를 천대하는 사회제도로 전환하여 불교는 쇠퇴일로에 수난을 겪었으며, 그러면서도 세종대왕대에 이르러 불교종파 정비를 단행하여 조계, 천태, 총남의 3종을 선종으로 화엄, 자은, 시흥, 중신의 4종을 교종으로 통합하여 선·교양종으로 확립시켰다.

조선시대에도 고승들이 배출되어 무학(舞鶴), 함허(涵虛), 서산(西山), 사명(泗溟), 처영(處英), 영규(靈圭) 등은 더욱 유명하여 역사의 인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일제침략으로 말미암아 사찰령(寺刹令)에 의하여 전국에 31본사, 120여 말사를 두고서 일본화 불교로 개조하려 하였으나 민족정기에 불타는 애국승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광복하였으며 광복 후 승려대회를 열어 교구제를 정하고 중앙에 총무원(總務院)을 두고 각도에 교무원(敎務院)을 설치하여 교화에 힘써 국내에서 최다교인을 포섭하는 종교로 발전하였으나 비구(比丘), 대처(帶妻)승의 싸움이 치열하여지면서 불교본연의 자비정신이 쇠퇴하면서 분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군 번암면 죽림리에서 태어난 백용성(白龍城)스님은 3·1운동의 기수로서 조계종을 중흥시킨 선승(禪僧)으로 유명하며 장수가 낳은 위인중의 한 분이다.

도교(道敎)는 불교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다같이 도관(道觀)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아 배척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유교나 불교처럼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유신앙 형태인 신교와 신앙형태가 동일 내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의 도교와 우리나라 신교가 부지불식간에 융합되어 신라의 화랑도 조선말의 동학, 증산도, 일관도 등이 신교와 도교의 융합 합작한 종교로서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소수종교로 신흥종교로서 전래되고 있는 것이다.

도교란 신선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음양(陰陽), 오행(五行), 복서(卜筮), 무

축(巫祝), 도가철학(道家哲學), 노장학(老莊學)을 첨가하여 교리로 삼고 후한 말기에 장도릉의 오두미교(五斗米教)를 원류로 하여 그의 자손이 강서성 용호산에서 정일교를 개교하고 북위(北魏)에 이르러 구겸지란 사람이 도교로 확립하여 국가적 종교로서 발전시켜 불교와 쌍립하는 경쟁사태가 되었다.

고구려의 영류왕 7년(624 甲申) 당나라로부터 도사가 파견되어 천존상(天尊像)과 도법을 전수한 기록이 처음이며 643년(보장왕 2년 癸卯)정 연개소문의 요청으로 당나라에서 숙손(叔孫)이란 도사가 7인의 도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에 오면서 노자 도덕경(老子 道德經)을 보내오면서 개령의 북쪽에 복원관(福源觀)을 세우고 삼청상(三清像)을 모시면서 도관과 도사를 두어 일시적으로 불교에 버금가는 종교로서 우리민족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예맥민족으로부터 전래되는 신교, 무속과 상통되는 천신을 믿는 풍속과 통합으로 융합 합작하여 토속종교로서 변모하는 것이다.

단학(丹學), 선풍(仙風) 등이 모두 도교에서 기원한 것이며 신흥종교의 대부분이 이 도교를 흡수 융합하여 토속종교로 만든 것이다.

1. 서학(西學)의 전래과정

서학이란 천주교, 기독교 등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서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을 그리스도 이전에 기록한 구약성서와 그리스도시대에 기록한 신약성서라 하여 구약, 신약의 성서에 기록된 계시를 교리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세계적 종교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세계적 종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무자비한 박해를 받아 수많은 성직자가 희생되고 무수한 신도들이 순교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세를 확장하여 합법적인 포교활동을 하면서부터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와 같은 전성시대를 이룬 것이다.

특히 천주교에 대한 조선말엽의 무자비한 박해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다.

천주교는 13세기에 징기스칸이 몽고족을 이끌고 구라파를 원정하였을 때 동양에 전파되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는 1594년(宣祖 27년 甲午) 포르투갈 신부 세스베데스(G Cespedes)가 왜군의 종군신부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실시, 왜군침략으로 생성한 거부감 때문에 실패하였으나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을 보호하며 포교활동을 하여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전하여오며 포로들이 송환된 후에도 일본 침략의 거부감으로 실질적 영

향력은 없었다.

그러나 선조 광해군연대에 연경(燕京)을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 사상을 연구 소개하는 기록들이 남아있으니 그 대표적인 기록이 이수광선생의 지봉유설(芝峰類說)이니 선생은 1563~1628(명종 18년~인조 6년)년대의 명관으로 명나라에 주청사(奏請使)로 왕래하면서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저서 「천주실의(天主實意)」 「교우론(教友論)」과 중국인 유변 심인기 등이 저술한 「속이담(續耳潭)」 6권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조선국에 최초로 서학을 도입하였다.

지봉선생은 지봉유설을 저술하여 서양의 형태와 시정(時政) 천주교 지식을 소개하였으니 이 때에는 종교로서가 아닌 학문으로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는 1603년(宣祖 36年 癸卯)에 허균(許筠)이 북경을 왕래하면서 천주교를 신봉 연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영조(英祖 1725~1776)말기에 조정의 벼슬자리를 물러난 이벽(李穡)의 3형제 등 남인의 유력한 인사들이 천주학 연구에 열중하여 처음에는 학문으로 연구되었으나 점차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천주교에 정식으로 입교한 사람은 이승훈(李承薰)으로 1783년(正祖 7年 癸卯) 그의 부친 이동욱(李東郁)을 따라 북경에 가서 그라몽(Grammont)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니 정식 입교의 절차를 밟아 교인이 되었다.

천주교는 선교사의 전도가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발달한 것은 세계교회사상 유례가 없는 특징을 이루었으며 정식 선교시대에 이르렀으나 서양문화의 우월성과 서양전례만을 고집하는 보수적 사제단들의 선교방법 때문에 서학박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유, 불, 도의 3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민족에 귀화하여 고유신앙과 융합하여 토착신앙으로 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서양문화 서양전례를 우선으로 실행하고 고집한 포교활동은 양반계층과 유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결정적인 박해의 원인은 천주교도들에게 조상의 제사를 폐지시키는 조치에서 시작되었다.

천주교에서는 중국교구에서 이미 1742년부터 조상의 제사를 폐지시켰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790년(正祖 14年 庚戌)에 북경에 밀파되었던 윤유일(尹有一)이 당시 북경교구 주교 구베아(Gouvea)에 의해서 조선 천주교 신도의 조상 제사 폐지를 시달 받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제사 폐지 사건으로 세

상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전라도 진산현(珍山縣)에서 처음 일어났다. 1791년(正祖 15년 辛亥) 8월 진산현에 거주하는 윤지충(尹志忠)은 모친 권씨 상을 당하여 예도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으나 외종형 권상연(權尙然)과 상의하여 망인 권씨의 유언과 주교의 지시에 따라서 신주를 불태워 버리고 영실을 없애고 제사를 폐지하였으므로 그의 소행에 대하여 조야 경향을 막론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비등하였다.

조상의 제사가 국교처럼 존중되던 유교전통의 사회에서 그들의 행위는 전통문화와 사회질서를 완전히 거부하는 모반이요, 국교에 대한 도전이었다. 유교계층이나 조정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무부무군(無父無君), 멸륜란상(滅倫亂常)으로 몰아부쳐 대명율(大明律)에 의하여 참수형을 집행하였으니 이것이 1791년 12월 8일 오후 3시에 전라도 전주감영남문밖(현 전동성당 부근)에서 집행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인들의 서학연구와 주자학에 실증을 느낀 젊은 학자들과 중인계급과 천대받은 상인계급의 호응을 얻어 급격히 세력이 커져가서 신앙운동으로 표면화되었다.

조정에서는 기존질서에 위협을 느껴 이것을 방관하지 않았으며 1785년(正祖 9년 乙巳) 김범우(金範宇)를 유배시키고 천주교 서적을 불태우는데 그쳤으나 1791년(正祖 15년 辛亥) 신해사옥(辛亥邪獄), 1801년(純祖 1년 辛酉)의 신유사옥을 일으켜서 천주교인 색출방법으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 시행되어 이승훈, 이가환, 권철신 등의 유명한 신도와 주문모 신부 정약용 회장 등이 차례로 처형되어 순교하였으니 순교자의 총수가 300여명에 이르렀다.

1815년(純祖 15년 乙亥)에는 경상도에서 1827년(純祖 27년 丁亥)에는 전라도에서 다시 수백명의 신도가 수난을 당하여 순교하였다.

이러한 수난에도 불구하고 1831년(純祖 31년 辛卯) 이제까지 북경교구에 속해있던 우리나라에 조선교구를 독립시켰으며 1836년(憲宗 2년 丙申)에는 프랑스인 신부 모방(P. Maubant)이 입국하고 다음해에는 암베르(Imbert)주교가 샤스텐(Chastan) 신부의 뒤를 이어 입국하여 다시 교세가 확장되었다.

1839년(憲宗 5년 己亥)에 다시 기해사옥(己亥邪獄)이 발생하여 3명의 선교사와 수백명의 신자가 사형을 당하였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여도 신앙 활동은 계속되어 1845년(憲宗 11년 乙酉)에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김대건(金大建)이 신부가 되어 페레올(Ferreol)주교와 다블뤼(Daveluy) 신부

를 대동하고 입국하였으나 동년 9월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박해로서 끝나고 말았다.

1864년(高宗 1년 甲子) 고종임금이 등극하며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더욱 박해가 심하여 1866년(高宗 3년 丙寅) 김장운, 남종삼, 홍봉주, 정의배 등 중요한 신도와 9인의 프랑스인 신부가 처형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1873년(高宗 10년 癸酉)까지 400 여명의 신도와 신부가 처형되었으나 대원군의 몰락으로 1882년(高宗 19년 壬午)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어 천주교 외 기타종교의 활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교세가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일제치하를 지나 광복이 되면서 참다운 신앙의 자유를 얻어 대폭적으로 교세가 늘어 현재 남한에는 대교구 3개소(서울, 대구, 광주), 평교구 10개소, 성당 437개소, 한국인신부 564인, 외국인신부 340명, 신도 100만명을 추산하는 대종교로 발전하였다.

2. 기독교(基督教)

기독교는 비교적 순조롭게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 1866년(高宗 3년 丙寅) 미국인 토마스(Thomas)목사가 미국상선 제네럴셔어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올라가 평양에 들어가 성경을 전하였으나 상선을 불태우고 선원과 토마스목사를 죽여서 순교하는 결과가 되었다.

1882년(高宗 19년 壬午) 한미수호조약후에 1885년(高宗 22년 乙酉) 미국인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HG Under Wood)와 미국인 감리교 목사인 아펜실러(HD Appen Zeller)가 입국, 포교활동을 시작하여 급속도로 전파되었으며 1887년(高宗 24년 乙亥) 만주에 와 있던 영국의 목사인 존로스(John Ross)목사와 존매킨타이어(John Macintyre)목사의 노력으로 백홍준, 이용찬, 이성하, 김진기제씨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 출판하였으며 그 출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일본유학생 이수정은 성경을 한역본(漢譯本)으로 만들어 국내에 들어왔음으로 기독교의 전성시대를 이룩하였으며 미국 남장로교, 미국북장로교, 미국남감리교, 미국북감리교, 캐나다장로교 등이 조선선교부를 만들어 조선기독교 포교의 근원이 되었다.

기타 예수교 각파가 우후죽순처럼 밀려와 우리나라는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의 포교활동의 천국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3. 신흥종교(新興宗教)

신흥종교라 함은 기성종교(既成宗教)와 구별되는 종교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유, 불, 도, 기독교 등을 기성종교로 구분하고 조선중기부터 사색당쟁의 격화로 사회가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이씨 왕조마저 무력해졌고 정감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말세의식이 팽배하자 정치적 사회적인 부패, 도덕적인 타락, 사상적인 빈곤이 겹치면서 망국 말세의식으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이상세계를 회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취하지 못하는 욕망의 신인, 도인, 도통군자로 보이는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사고로 변하여 막연하게 요, 순과 같은 임금님이 나타나는 것이나 극락세계가 현실로 나타나는 무상대도의 현실화를 바라게 되며 이러한 심약한 민중들에게 말세의식이나 망국 멸족의 강박관념을 유포 주입시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이른바 도통공부를 하여 영통하였다고 하는 사람 신의 계시를 받아 신통하였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래사나 시사를 예언하고 새로운 도리나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며 주술(呪術)이나 안찰(按察)등으로 신병을 치료하기도 하여 민중들의 심리가 이러한 자칭도인 자칭구세주라는 사람들에게 쏠려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계통의 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1860년(哲宗 11년 庚申)에 경주출신 수운(水雲) 최제우가 일으킨 동학이란 종교는 조선후기의 양반계급의 부패한 정치와 가혹한 착취로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강대한 외국세력에 의한 내정간섭과 경제적 침략으로 극도로 불안하여 긴장이 계속되어 오던 중에 서학(천주교)이 잠입하여 포교활동을 벌였으나 유교적인 윤리에 젖어있는 조선민중에게는 환영받지 못하였으나 서학에 대립하여 제세구민(濟世救民)의 기치를 높이 들고 소박한 민중을 상대한 유, 불, 선 삼교를 토대로 인내천(人乃天), 천심즉인(天心卽人)이란 사상을 펼쳐 나갔으니 양반계층의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시달리고 염증을 느끼고 적서구별로 인한 가정제도에 비판적이던 민중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급격히 파급되어 삼남지방에서는 서민계층에서 동학교도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세가 팽창 되었다.

그것이 불과 3,4년 사이여서 조정에서는 뒤늦게 실상을 파악하고 위협을 느껴 1863년(哲宗 14년 癸亥) 12월에 동학교조 최제우를 흑세무민(惑世誣民)한다는 죄명을 씌워 체포구금하고, 다음해인 1864년(高宗 1년 甲子) 3월 대구감영에서 참수형을 집행하여 효수(梟首)시킴으로서 동학교조 수운 최제

우 선생은 동학순교제일인자로서 불귀의 객이 되었다.

조정의 탄압이 시작되자 지하로 숨어든 동학은 2세 교조 최시형의 지도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여 전국적인 조직이 확립되었으며 동학의 주문인 「지기금지(至氣今至) 원위대강(願爲大降)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가 방방곡곡에서 외워지고 교세는 기하학적으로 불어나서 양반계급에 대한 반항과 외국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변모하면서 농민계층이 모두 참여하면서 집단적인 저항운동으로 변화하여 1893년(高宗 30년 癸巳) 5월 충청도 보은(報恩)에 2만명의 동학교도가 결집하여 일본과 서양인을 배척하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표방하면서 정치문제화 하면서 사회의 개혁 정치적 혁명을 꾀하였으며 1894년(高宗 31년 甲午) 2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못 살게 된 동학교도 1천여명이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의 지휘하에 고부관아를 공격 함락시키고 여세를 몰아 전라도의 각 고을을 점령하였으며, 심지어 전라도 감영마저 점령 하게 되어 조정과 동학군 사이에 강화조약이 성립되고 전라도 53 개군에 동학의 집강소(執綱所 민정 자치기관)를 설치하기에까지 이르렀으나 일본군의 참전으로 공주 태인에서 패전을 거듭하고 전봉준 등 지휘자의 체포 전사로 말미암아 장수, 남원의 산간으로 숨어들어 유격전을 벌이다 섬멸되어 동학혁명군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동학혁명군의 거사실패로 2세교주 최시형 마저 체포되어 1898년(高宗大韓 2년 戊戌) 7월에 처형당함으로서 제3대 교주로서 손병희가 취임했다. 동학의 교명이 천도교로 개칭되면서 이 무렵부터 친일파가 동학에 침투하여 천도교에서는 불순분자로 지목하여 추방하였다.

이 일파가 시천교(侍天敎)를 만들고 분파하였으며 여기서 다시 유명무실의 여러 개의 교파가 생겨나서 광복전후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흥종교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남학이란 동학과 같이 서학(西學 天主教 基督教)에 대항하여 설립된 국산종교로서 1860년(哲宗 11년 庚申)경에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서 태어난 이운규(李雲圭, 號 연담(蓮潭) 또는 淵潭)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며 정역(正易)과 오음주(吳音呪)를 교리로 삼아 교단을 형성하였으며 1대교주가 죽은 뒤에 제자 김항(金恒 호一夫)가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분파창립하고 같은 제자 김치인(金致寅, 호 光革)이 오방불교를 분파 창립하여 교세가 불어났으나 동학혁명의 와중에서 동학과 같이 취급되어 탄압당하고 교세가 급격히 쇠약하여

현재로는 10여개파로 분립되어 더욱 미세화 하였다.

대종교란 단군계의 종교로 단군을 신앙대상으로 하여 국조단군을 숭배하는 국수주의 종교이며 1890년(高宗 27년 庚寅)경 평남 맹산에서 태어난 김렴백(金廉白)이 신교라는 교명으로 창설하였으며 1904년(高宗大韓 8년 甲辰)에 나철(羅喆, 호 弘巖)에 의하여 창설된 대종교에 병합되었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본부를 만주로 옮겨 항일독립운동단체로서 더욱 유명하여지면서 종교의 포교활동보다 독립운동에 주력하여 교세는 약해졌으나 광복 후 국내에서 다시 포교활동을 개시하여 20여개의 교단으로 형성되어 있어 교세는 미약한 상태이다.

증산교(甞山敎)는 1901년(高宗大韓 5년 庚子) 전북 정읍군 고부 출신 강일순(姜一淳, 호 甞山)이 모악산에서 수도하여 도를 깨달아 자신이 구천상제의 화신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신으로 태어나서 선후천교역기의 개벽공사를 행한다하여 교단을 설립하고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교세확립을 하였으나 일제탄압과 강증산선생의 사망으로 지하포교로 들어갔으나 광복과 더불어 양성화 되고 현재로서는 종교보다 학문으로서 증산교를 연구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니 증산교의 교리가 타종교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증거라 할 것이다.

원불교는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1891년 박중빈이 태어나서 호를 소태산이라 부르고 구사, 구도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동학, 증산교를 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독자적인 수도공부로 계속하여 1916년 3월 홀연히 심안이 열리며 유, 불, 도, 증산교 등의 모든 이치가 확연히 깨달아 소위 대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박중빈이 도통하였다는 소문이 퍼져서 추종하는 신자가 날로 늘어나 일단의 교조로 추앙하게 되었으며 정법불교(正法佛敎)를 창교 할 목적으로 불법연구회(不法研究會)란 간판을 내걸고 불법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생활불교로서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으며 유, 불, 선 3교가 합치하는 원융불교로서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이라는 법언을 제창하고 실천요강으로 사은, 사요, 삼학, 팔조를 제정하여 혁신불교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1924년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에 교단의 본부를 설치하고 포교활동을 하였으나 일제탄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1943년 대중사 소태산 박중빈이 별세함으로써 제2세 종법사로 정산(鼎山) 송규(宋圭)가 취임하여 대중사의 창교 이념에 부응

하는 교리를 정리하여 교명을 원불교로 개칭하여 포교 운영의 방침을 교육, 자선, 교화의 3대 사업으로 정하고 교단본부의 주위에 중학,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고 전국에 포교기반을 넓히고 해외에 까지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대종교로서 발전하였다. 1962년 2세 종법사가 별세, 3세 종법사로 대산 김대거가 취임하였으며 한국신흥종교로서 제일가는 발전상을 보였다.

원불교는 교리의 연원을 불법에 두고 있으나 불교의 견성(見性) 유도의 솔성(率性)도교의 양성(養性)을 망라하여 교리로서 융합하여 그야말로 심오한 종교, 개혁한 종교로서 인간생활이 모두다 불법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우주만물이 모두다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처처불상이라 하며 사람의 생활하는 행동이 모두다 불공이라 판단하여 사사불공이라 하였다.

따라서 선법도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시선무처선이라 하였다.

교리와 불법과 생활이 일원화 되고 법(法), 상(相), 리(理), 사(事)가 한가지로 어우러져 있는 진리는 하나의 둥근모양인 즉 일원상(一圓相)으로 밖에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을 불법상의 형상이며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우주만물의 본원이라 하여 일원상을 신앙의 상징으로 삼고 그원리 아래에 4은(四恩) 사요(團要) 생활신조와 삼학(三學) 팔조(八條)의 수양요강을 두고 있어 철저한 생활종교로서 확립된 개혁불교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기관으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를 설립하고 자선기관으로 고아원, 양로원을 각처에 설립하고 교화기관으로 선원 포교소를 전국에 설립하였으며 인쇄소, 병원, 약국, 농원, 기타 사업기관을 거느린 막강한 재단마저 확립되어 세계적인 기반이 잡힌 국산 신흥종교로서 발전한 것이다.

1920년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천등산 아래에서 태어난 손치성은 천등산 동굴 속에서 수도 기원하여 도통하였다. 자처하고 무량교(無量敎)의 교주가 되었으며 그의 제자들이 봉남교, 안심교, 자각도, 삼령교, 산신교 등 분파하여 영세한 종교로 전락하였으나 국산종교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으며, 산신숭앙(山神崇仰)과 상제신앙(上帝信仰)으로 우리민족의 고대신앙과도 통하는 고유신앙이라 할 것이다.

영주교(靈主敎)는 1915년 전북 김제군 용지면 용수리에서 태어난 임구천(林九天, 본명 春生, 도호 영당(靈堂))이 입산수도 수년 동안에 통령(通靈)하기에 이르러 우주와 인생의 생성원리와 제도중생 할 수 있는 세상대도의 근

본인 영명의 이치를 깨달아 영명의 이치를 세상에 포교하고자 영주교를 설립하고 1937년부터 포교를 시작하였으나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교세를 확장하지 못했으나 광복과 더불어 교세를 확장하고 서울로 본당을 옮기고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영주교는 만물을 창조 주재하시는 영명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뜻으로 항상 공경하고 인내하고 전율(戰栗)하고 행동하여 기원과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사인(四忍), 사전(四戰), 사행(四行)의 실천요강이 있으니 충효의 사상과 영계를 주장하는 동양철학과 부합하는 순수한 국산종교로 확립된 종교라 할 것이다.

기독교계의 신흥종교로서 최초로 창설된 것은 1930년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서 최태용목사가 외국의 선교를 배척하고 독자적인 포교를 목적으로 복음교회를 최초로 창립하는 것을 효시로 1950년 나운몽 장로가 용문산기도원을 창설하였으며 1950년 박태선 장로가 김해에서 기독교전도관을 설립하였다가 뒤에 동방교(東方敎)로 개칭하여 교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기독교계 한국산 신흥종교가 되었다.

1951년 부산에서 창설된 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문선명목사가 창설한 기독교계 신흥종교로서 뒤에 통일교(統一敎)로 교명이 개칭,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교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적인 종교로서 발돋움 하였다.

일관도(一貫道)계의 신흥종교단체는 도덕회(道德會), 대한도덕회(大韓道德會), 국제도덕회(國際道德會) 등으로 분립되어 있으나 교리는 모두 같은 것으로 유, 불, 도, 기독교, 회교의 세계 5대 종교의 진리를 일관한다는 종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광범위한 교리가 형성되어 체계화 되어 있다. 여기서는 다시 신령도덕회라는 교파가 생겨나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속신앙계(巫俗信仰系)로서는 관성교(關聖敎), 칠성교(七星敎), 삼신교(三神敎), 삼황교(三皇敎), 성화교(聖化敎) 등이 있으나 그 교세는 미미하여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형편이라 하겠다.

계통불명의 종교단체로서 금강도(金剛道), 정도교(正道敎), 제화교(濟化敎), 영주교(靈主敎), 일심교(一心敎), 정일회(正一會), 고등종교관(高等宗教觀) 등이 생겨나서 나름대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신흥종교의 왕국이요 전성시대라 할 것이다.

외래종교로서 신흥종교인 일본국수주의 종교인 일연정종(日蓮正宗 일명 창가학회(創價學會)가 일제침략통치의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상

륙하여 전국적으로 포교되고 있음은 실로 한탄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는 사태라 할 것이며 국민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라 지적하고 싶다.